

세계일보

The Segye Times

THURSDAY, AUGUST 6 2009

문화

코리아아트갤러리 영문판 뉴스레터 창간

한국전통문화 영어 소개 큰 호응

1천100명에 이메일 발송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영어권에 체계적으로 소개할 뉴스레터지가 창간됐다.

뉴욕에 소재한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관장 로버트 텀리)는 지난달 말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영문판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간, 총1천100여명에 이르는 소사이어티 멤버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일제히 발송했다. '한국의 무속 예술을 주제로 한 이 창간호 뉴스레터를 받아 본 KAS 멤버 가운데는 미국 우수한 박물관 큐레이터 및 한국전통미술 전문가, 칼렉터, 학자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온라인을 통해 구성된 커뮤니티인 만큼, 이 멤버들은 전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한국전통무속문화에 관한 유익한 영문판 기사들이 다채로운 컬러 사진과 더불어 실린 이 KAS 창간호에는 로렌 더치가 쓴 '부처를 사지 마라', 데이비드 메이슨이 쓴 '신신령 연구', 그리고 테레사 김의 '한국무



코리아 아트 소사이어티가 '한국의 무속 예술'을 주제로한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간했다.

속미술소장품 전시와 같은 유익한 기사들이 실려있다.

창간호에 기고한 필진으로는 서울 가회미술관 창립자이자 디렉터인 윤열수, 탈춤을 포함한 한국의 전통 퍼포먼스 아트의 권위자 데레사 김 박사, 퍼시픽림아트 수석 프로듀서이자 디렉터인 로렌 더치, 그리고 한국 산신 숭배문화에 관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 데이비드 메이슨 등이 포함되어있다.

로버트 텀리 KAS 관장은 "이번 영문판 뉴스레터 창간은 한국전통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지평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될것"이라며, 창간호 발표 이후 전세계 한국전통미술 애호가들로부터 뜨거운 지원과 성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뉴스레터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신청 이메일은 robert@koreanartsociety.org로 보내면 된다. <황귀화 기자